



Analyst 김도하 · 02-3773-8876 · doha.kim@sk.com

# Issue Comment

- ✓ ING 생명,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시
- ✓ 2019년까지 배당성향 50% 이상을 유지할 계획
- ✓ 업종 내 자본력 우위 및 고배당 의지를 확인한 점이 긍정적

## ING 생명: 중간배당으로 자본적정성 우위 및 고배당 의지 확인

- ING 생명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고 공시. 주주명부 기준일은 오는 7월 31 일이며, 9월 14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
- ING 생명은 또한 중기적인 배당정책과 관련해, K-ICS (a.k.a 신 RBC)의 세부사항과 회사의 영향이 가능될 2019년까지는 50% 이상의 배당성향(중간배당 및 기말배당 합산)을 지속하겠다고 밝힘
- ING 생명의 중간배당 결정은 동사의 상대적 우위인 자본적정성 및 고배당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. ING 생명의 1Q17 말 RBC 비율은 287.7%로 생보업계 8위 수준이며, 부채 듀레이션 증가를 야기하는 RBC 규제 강화 적용 시 +2.4년의 duration gap 덕분에 오히려 금리리스크가 축소되면서 자본비율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. 이는 자본규제 강화 흐름에서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타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성
- SK 증권은 ING 생명의 연간 배당성향 (2017E 53.6%) 및 배당금 규모 (2017E 1,722 억원)에 대한 전망치를 유지함. 단, 주당 배당금의 기댓값을 기존 연말 2,100 원에서 3Q17 500 원, 연말 1,600 원으로 변경함 (시가총액 4,000 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중간배당:연말배당=1:3 수준임을 참고함). 이때 기대 배당수익률은 중간배당 1.4%, 연말배당 4.3%로 전망돼 배당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